## 한 · 중 운항 여객선 안전관리 강화된다

### 10일 양국 해상안전협의회서 합동 승선점검 등 실시 합의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카페리 여객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10일 중국 시안(西安)에서 열린 '제7차 한 · 중 해상안전협의회'에서 지난 2월 홍해에서 발생한 이집트 여객선 '알-살람 보카치오 98호' 침몰사고와 같은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양국간에 운항하는 카훼리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양국간에는 모두 13척의 카페리 여객선이 운항중이며 지난해에는 이들 선박을 통한 여객수송이 백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양국은 빠른 시일 내에 이들 선박에 대한 합동 승선점검을 실시한 후 선박 및 선사의 안전관리체제(ISM)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양국은 또 지난 3월 20일 인천 앞바다에서 침몰된 화물선 '신하이 7호'의 조속한 인양작업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 배는 수면 가까이에 침몰돼 있어 다른 선박의 항행에 큰 위험이 되고 있었음에도 선주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그 동안 인양작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한편, 중국은 노후선박에 대한 안전강화 방안의 하나로 선령 20년 이상된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 강화, 30년 이상 선박에 대한 폐선조치 및 입항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 선사의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 중 해상안전협의회는 1999년 이래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열리고 있으며, 그 동안 양국간 운항선박의 안전확보, 항만국통제의 이행, 국제해사협약에 대한 협력 등을 협의해 오고 있다.

# 해양수산 소식

## 소형선박저당법제정(안) 국회 제출

지금까지 선박등기 대상이 아닌 20톤 미만 소형 어선과 수상레저 선박인 모터보트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해져 소형선박 선주들의 자금융통이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형선박저당법'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소형선박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100%의 자기자본이 아니어도 선박구입이 가능해져 해양레저 산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20톤 이상 선박은 선박등기법에 따라 저당권 등 재산권행사가 가능했으나, 20톤 미만 선박은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처럼 법정담보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고가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담보가 불가했다.

특히 주 5일 근무제의 확산 및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라 해양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레저기구의 보급이 확산되고 있으나 선박담보가 불가해 레저용보트의 구입에 애로가 많았었다.

소형선박 법정담보제도가 도입되면 총 등록선박 9만8000여척 중 약 8만9000여척이 저당권 설정에 의한 자금융통이 가능하게 된다.

#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동정

## 2006년도 수산업 경영인 해외연수 실시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상만)은 수산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어업정보 수집 및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이태리, 프랑스 등 유럽과 일본 해외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해외연수에서는 홈스테이를 처음 도입하여 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접하게 되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각 연수단에는 어촌지도공무원이 동행해 상호 토의 등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 연수효과를 극대화 했다.

– 해외연수 실시전 사전교육 장면 –